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뺏기 스톱”

민주당-공정위, 당정회의 열어... 현행 체제 개선 필요성 공감·대책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기술자료 유출금지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액 3배로 개편 등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현행 체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마련은 정부의 노력에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체 기술자료를 유출, 유용하는 행태가 줄어들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대상 업체에 기술력 등을 증명할 자료제출을 요구한 뒤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기술만 빼내어 유사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우선 당정은 기존 공정위가 기술유

용에 대해 '신고처리'로 대응했던 것을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체계를 전환키로 했다.

기술유용 혐의 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정해 직권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집중감시업종은 내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 계열 등으로 정해졌다.

또 공정위 내에 변리사나 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해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도 설치해 기술유용 여부를 날카롭게 판단할 예정이다.

당정은 기술유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기존 '배 이배'에서 '배 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

관련 당정 간 합의도 이뤄졌다.

당정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 등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위해 기술자료를 유출하는 것부터 금지하도록 한다.

이들은 원가내역 등 경영정보를 근거로 하도급 업체에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기술유용 조사시효를 '납품 후 3년'에서 '납품 후 7년'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이들은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바꿔 하도급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대해 원사업자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해놓기로 했다.

당정은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전 협상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 은밀하고 교묘한 기술유용에 대한 효과적 처리가 힘들었다”며 “기술유용을 전문 처리할 조직 및 인원의 부족으로 기술유용을 강력히 대처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고 자성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술유용 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조직을 설치해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인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집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위반 적발률을 높일 것”이라며 “기술유용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강력히 제재하고 손해배상액 3배 조정으로 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합의한 대책의 실현으로 중소기업 성장기반이 튼튼해지고 산업 경쟁력을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



한전 전북전지사, 남원시에 후원금

추석맞이 이웃돕기 위해... 백미 50포·생활용품세트 등

지난 8일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가 남원시를 방문하여 추석맞이 이웃돕기를 위해 백미10kg 50포(100만원), 밀치 및 생활용품세트 170박스(440만원), 후원금 24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시장실에서 이환주 남원시장과 조성준 한전 전북건설지사장, 왕형두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성금을 전달하고 오후에는 직원들이 함께 주천면 옥포정을 찾아 휴가철 오염된 탐방로 정화 활동을 펼쳐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이번 후원금품은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기쁨을 주고자 뜻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남원시 소외계층과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조성준 한국전력 전북건설지사는 “추향의 고장 남원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뜻깊으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 관계자 여러분의 나눔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소외된 시민 없이 모두가 잘사는 남원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8월말 펀드 순자산 518.4조 기록... 한달새 4.8조 ↓

미국·북한 간 긴장 심화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전체 펀드 순자산 감소

지난달 미국과 북한간 긴장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식형 펀드 자금이 줄고, 기관투자자의 환매로 머니마켓펀드(MMF) 자금도 빠져나가면서 전체 펀드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말 전체 펀드 설정액은 전월 말 대비 4조6000억원(0.9%) 감소한 51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4조8000억원(0.9%) 줄어든 51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000억원 감소했으며 해외주식형펀드 순자산은 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1000억원(0.2%) 감소한 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국내주식형펀드는 코스피 하락과 펀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8월 한 달간 1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2000억원(0.4%) 감소한 5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형펀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 스페인 테러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다만 글로벌 증시 상승에 따라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1000억원(0.6%) 증가한 1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큰 시사점 없이 마무리된 짝스플 미팅으로 국내외 채권시장이 별다른 변동없이 보험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체 채권형펀드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1000억원(0.1%) 감소한 10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채권형펀드의 경우 한 달 동안 2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됐으며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3000억원(0.4%) 감소한 9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해외채권형펀드는 한 달 동안 2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으며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3000억원(2.5%) 증가한 11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재간접펀드는 3000억의 자금이 순유

입됐다.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5000억원(2.2%) 증가한 22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MMF의 경우 한 달 동안 8조원의 자금이 순유출됐다. 이에 따라 8월 말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7조9000억원(6.1%) 감소한 122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펀드는 2000억원의 자금이 순유출돼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3000억원(0.6%) 증가한 45조4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펀드도 1조원의 자금이 순유입, 순자산은 전월 말 대비 1조원(1.8%) 증가한 56조1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별자산펀드 역시 7000억원이 순유입, 순자산은 8000억원(1.4%) 증가한 54조9000억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뉴스

KB자산운용, 커버드콜펀드 2종 출시

KB자산운용은 8일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KB고배당커버드콜펀드'와 'KB유로커버드콜펀드'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커버드콜은 지수를 추종하는 주식, 주가지수선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을 매수하는 동시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팔아 안정적인 운용가격 확보하는 전략이다.

'KB고배당커버드콜펀드'는 국내 고배당 주식에 투자하며 동시에 코스피

200 콜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안정적인 배당수익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추구한다. 납입금액의 1%를 선취하는 A형(연보수 0.965%)과 0.5%를 선취하는 A-E형(연보수 0.725%, 온라인 전용), 선취수수료가 없는 C형(연보수 1.475%)과 C-E형(연보수 0.985%, 온라인 전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KB유로커버드콜펀드'는 유로존 주

식시장의 대표지수인 유로스톡스(EURO STOXX)50 지수 구성종목에 투자하며 콜옵션 매도전략을 사용한다. 납입금액의 1%를 선취하는 A형(연보수 1.055%)과 0.5%를 선취하는 A-E형(연보수 0.805%, 온라인 전용), 선취수수료가 없는 C형(연보수 1.555%)과 C-E형(연보수 1.055%, 온라인 전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뉴스

건협 전북, 군산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는 군산시(문동신 시장)에 '2017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 대한전문 건설협회 전라북도회에서 전문인력과 자재 및 필요 예산 등을 제공하여 지붕누수, 도배? 장판 등 노후 부분 보수와 장애인 및 노인의 험터를 위한 휴게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수송동 신화연립주택 어르신들의 휴게 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광한 회장은 "경기가 어렵고 각박한 사회지만, 저소득 주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려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2015년에 이어 군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소득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KOOSCA) 전라북도회는 1985년 10월 전문 건설업체의 건설기술 개발과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도내에 2,207개, 군산시에 234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8월에 문동신 군산시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이광한 회장, 박해영 군산시협의회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군산=김미련 기자

기사제보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